

사설

사찰재산권 보호

문화재관료와 공원임장료를 함께 받아오던 정부가 갑자기 '분리징수'를 강행함으로써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직면하고 있다. 법주사등 일부 사찰에서도 산문폐쇄등 강경한 대응을 선언하고, 종단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일에는 관료로 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에서 사찰소유토지를 제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하는 등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왜 불교계가 분노하는가. 그것은 이미 국립공원이 생겨날때도 거슬러 올라간다. 공원이 1967년 제정·공포되고 당시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강압적으로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불교계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 그 시행을 미루기까지 했다. 1972년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유신정국속에서 강행되어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개의 국립공원 속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전통을 가진 불교문화유산이 많다. 사찰소유의 토지나 경관이 국립공원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찰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원정책은 불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기도는 강압행정·전시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불교계의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어왔다.

우선 삼보장제이고 민족문화유산인 사찰이 획일적인 공원정책으로 황폐화 되거나 수행공간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보존·계승되어온 불교문화재가 잘못된 정부의 고층과 보수·개수등 복원공사로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다. 석굴암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확보

를 위하여 공원지역의 개발의 강도가 높아져서, 관광지·유락지 등 취락지역의 개발로 사찰환경이 파괴되어 큰 피해를 입고있다. 환경분쟁으로 정부와 사찰이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50여군데가 넘는다.

최근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가야산에 팔포장전설 허가를 내주어 불교계와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것을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비뚤어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공원정책은 본래 '황폐해가는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에 서식하는 동물의 보호를 꾀하고 각종 천연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국민의 문화연구와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허울좋은 명분이라는 점이 속속 밝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 위락시설, 집단시설 등의 건설로 국립공원 안의 자연경관과 사찰경관, 불교문화유산을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교유산이 공원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불교계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포기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 안의 수려한 경관과 전통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사찰재산상도 사유재산이므로 그 소유권은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대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민약에 공공필요, 질서유지 등으로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관료와 공원임장료의 분리 징수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국민에게 이종부담을 주는 공원임장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열린마당

만18세이상 음주·흡연 허용



행정세신위원회는 8월28일 현재 법령마다 달리 규정된 음주 및 흡연 허용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조정했다가 29일 종교계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반대어려에 밀려 최종결정을 유보했다. 청소년 음주, 흡연 연령하향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청소년의 탈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유치장에 수감된 유혹업소 10대 접대부들.

친성

고교졸업생 사실상 통제권 밖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금지연령과 유혹업소 출입금지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탈선을 조장한다는 견해는 소극적인 발상이다. 현재 청소년과 관련한 규제법은 들쭉날쭉하게 돼 있어 법집행에도 혼란과 형평성 시비를 초래해왔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규제연령을 18세로 내려 체계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또 규제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것은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올라가는 기준을 낮춤으로써 보다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성년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성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일찍이 지우고 있다.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 법학과 교수>

정신·신체적 성숙 고려해야
성인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다는 것은 분명한 논란거리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성인의 기준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나는 찬성하는 편이다.

아이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이미 18세도 되기전이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성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체적인 성장도 그렇거니와 요즘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숙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그런점에서 18세면 이미 다방면에서 성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하고 또 그렇게 대우도 해야 한다. 원미숙 <노원구 심계동>

연령에 맞춘 규제 비효율적

19살(만18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술, 담배는 물론 유혹업소에도 아무 꺼리없이 다녔고 누구에게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미성년자라도 대학생이면 합법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연령에 초점을 둔 규제방법은 시대적 조류를 고려치 않은 구수일 뿐이다.

그렇게 따지면 나 개인은 물론 나와 같은 친구들도 법적연령으로는 제약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대학교 1년때 유혹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다. 이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쳐 준다는 측면에서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 박 완 <한양대 영문과 3년>

반대

하향조정 청소년 탈선 가중

MBC TV의 '일요일일요일밤에'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한 코너인 '이경규가 간다'가 2주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지 않은 '양심가게'를 찾아 나섰다. 98년만에 한 슈퍼마켓에 '양심가게'와 함께 '양심가게'라는 표지판을 안겨 줄 수 있었다. 모든 상인이 그 법을 지켜 장사한다면 청소년유해환경은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게는 1백군데에 하나 정도도 단속도 부실한 실정이다.

때문에 미성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려는 방침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교를 졸업하면 술 담배를 묵인해 온 우리 관습에서 이를 현실화 하는게 낫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탈선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선일님 <인천시 유해환경감시단 단장>

18세 대다수가 고교3년생인데...

만18세면 현행 취학제도상 3월이전 출생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고교 3년생이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8세 대학생들의 입장만을 고려해 연령을 결정한다면 같은 나이의 더 많은 고교생들에게도 흡연과 음주를 허용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 뻔한 일이다. 행태위가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미성년 기준을 18세로 하되 고교생을 제외키로 했다고 하나 유혹업소 등에서 이들을 구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나는 기준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18세의 대학생과 근로자들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학송 <광동고교 교범사>

오히려 제도강화 필요한데...

청소년탈선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학교, 사회 가정교육의 세가지 축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고교생을 보호하면서 20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 대학생들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예외에 중점을 두어야 18세 이상으로 바꾸어 대다수 고교생을 예외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보다는 적용연령 제고, 술·담배판매소, 유혹업소의 여건 강화에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조성혁 <조계사학생활 교사>

행정세신위 개정 추진배경

행정세신위원회는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금지연령과 유혹업소 출입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 이하'로 조정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규가 금지 대상연령과 위반시 벌칙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집행상 혼란은 물론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법을 개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한데서 비롯된 것.

현행 법률에는 청소년의 음주 흡연 금지연령을 미성년자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은 20세 미만, 국민건강증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혹업소 출입금지 연령과 관련해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보호법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로, 18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상이

현행법규 미성년 연령 18~20세 서로 달라 행정단속등 혼란

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선거권은 20세부터 주어진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행정단속과 법집행, 교육지침은 늘 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또 행정단속과 법 집행의 권위는 더욱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틈을 비집고 썩은 공무원과 업자들간의 부조리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유혹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보호법이나 풍속규제법에 따라 18·19세 청소년을 적발 하다가도 업소측과 유착이 되면 그 순간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갖대로 삼는 등 합법적인 빌미가 돼 왔다.

그러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미성년기준을 낮춰 조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교육계와 청소년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기존 법령의 상당수가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 선진외국들의 사례를 감안하면 18세 미만으로의 통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팽방하다.

도필선 기자

현대만평

현대만평



이런 법이...

737-8881

생활 속의 불교 137

건강한 유마거사로 살고 싶거든

*사람의 몸뚱이 하나에 수많은 중생들이 우글우글 공생하고 있으니 이 몸은 걸로 보아 하나인 것 같을지라도 실은 수십억 중생의 국토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생들은 억겁을 거쳐 온 의식으로 뭉쳐서 몸을 집 삼아 돌아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한 몸 깨달으면 육신 속의 수십억 중생이 함께 제도되며 그 중생이 그대로 호법신 정도 되고 금강역사도 된다.

육신을 '나'로 여기지 말고 몸 속의 중생들과 같이 한마음이 된 선정을 내인줄 알라. 그 '나'는 전체가 공해서 돌아가기에 개별적인 나 아닌 포괄적인 나, 바로 주인공인 것이다.

유마거사가 문병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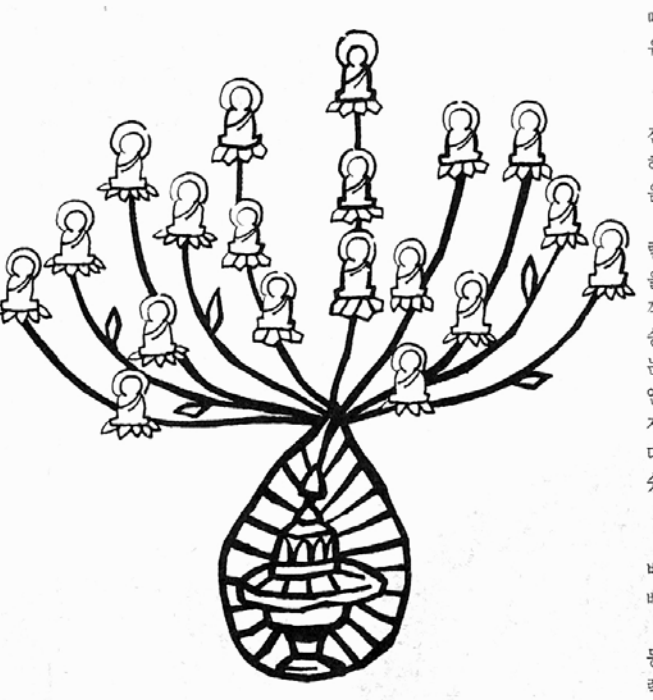
우리의 몸은 수십억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덩어리를 이룬 육성과 같은 존재다. 마치 55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지구를 꾸려가는 모습과 닮았다. 고로 유마거사는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한 것이다. 병

든 세포, 병든 조직이 있는한 이 몸을 건강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되물음인 셈이다.

각각의 세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생명체이다. 생명체로서 고유의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독립적인게 아니라 전체와 각각이 서로 밀려야 할 수 없는 필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 철두철미한 중생체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조립이 가능한 기계처럼 한 부위를 떼다 붙였다 할 수 없다. 장기이식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른 부위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말하자면 못 중생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의 그 '나'는 덩그러니 그 무엇이 아니라 몸 속 수십억 중생들의 의식이 한데 동동그려진 상태를 일컫는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인 것이다.

고로 전체로서의 의식이 일사불란하면 건강한 유마거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중생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 유마거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유마의 길은 무엇인가. 전체의식이 각각의 의식을 포용하고 거기에 하등의 마찰이나 갈등이 없어서 전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자의식 세계를 배에 비유하면 이렇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선장이라 한다면 세포 각각의 의식은 승객이 되고 육신은 배에 해당된다. 이 때에 승객은 선장을 신뢰하고 선장은 승객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아 그 소임을 다하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순항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칫 난파의 위험에 직면케 된다. 우리가 각자의 살림살이, 건강도 그와 비슷하다.

모든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를 바란다. 선장은 모를지라도 그 점을 잘 알아서 배를 안전하게 똑바로 몰아야 한다.

모든 세포의식들은 원한다. 생명체다운 약동과 진화과 발전을 원한다. 고통이나 무기력을 싫어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생명체로서의 존재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

고로 '나'라는 선장의식은 중생이 원하는 바-약동과 진화의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수십억 세포들이 원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무바로 배를 모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

원래 살아난 고가 아니다. 고통이 아니요 쇠피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체 특유의 기쁨이요 진화의 것이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바르고 고통없는 경계로 이끌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삶은 본래 기쁨인 것이 뽕중에도 참다운 기쁨인 것이다.

건강한 유마는 바르고 바른 길-중도의 기쁨속에 살아 있다. 삶에서 기쁨을 잃으면 병든 유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키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기쁨의 확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찬: 故 김수완